

구체화되는 原油汚染방제 국제협력

VLCC 등 대형유조선의 사고로 인해 原油가 바다에 대량 유출되는 사례는 관련국가간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日本 운수성에서는 「원유오염 국제SOS계획」을 수립, 1991년 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 내용은 ① 원유오염방제 국제협력기구를 日本內에 설립한다. ② 산유국들과 日本을 잇는 오일·로드(석유수송항로) 주변국에다 오염방제를 위한 機資材비축의 터미널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그후 4~5년에 걸쳐 본격적인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의도는 原油유출대책의 국제협력작업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의 수송로를 증진 그대로 유지·확보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규모 原油流出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국제협력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지난 '89년 3월 美國 알라스카 발데즈灣에서 발생한 대형유조선(엑스·발데즈號)의 좌초사고가 계기였다. 그 사고는 4만킬로리터라는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알라스카灣을 250마일 이상씩 사방에 걸쳐 오염시켰다. 따라서 해양생물들이 대량으로 죽는 등 美國 史上 유례없는 오염사고로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선진7개국 수뇌 회담에서는 지구규모로서의 환경오염방지에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美國은 추진역을 맡아 1990년 11월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 의무적으로 국제협력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새로운 조약을 채택키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日本당국은 자발적협력은 물론 필요한 자금의 원조 및 기술지원면에서도 적극 호응키로 한 것이다.

계획의 중점은, 다른 해역에 비해 국제협력체제의 어려움이 많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中東산유국과 日本을 연결하는 석유수송로에서 原油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오염확대 방지책을 갖추어 놓자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日本內에 국제적인 해양오염防除협력기구를 설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해역에서 原油유출 사고 발생시의 예상피해지역 및 그 규모 그리고 오염진행예측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 놓고, 상황발생에 따라 적절한 구원활동요원 및 필요기자재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防除기구에서는 관련각국의 전문가를 모아 정기적인 세미나와 페널토의를 하게 된다. 또한 사고당사국으로부터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 현장에 뛰어들어 구원·防除활동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어드바이서리 팀」(指導班)도 양성키로 하였다.

한편 자금면에서는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활용, 日本의 자금원조에 의해 오일·로드 연안국 4~5개소에 오염방제용 「기자재 터미널」을 설치한다. 여기서는 오염방제에 필요한 오일·펜스, 기름흡착제, 기름회수장치 등 효율적인 기자재를 상비해 놓는다. 그 후보지로는 싱가포르와 호주의 동쪽해안 그리고 인도의 서쪽해안지역이 꼽히고 있다. ♣ <金鍾七 옮김>

〈國際SOS計画 概念圖〉

